

소크라테스적 종교는 가능한가?

Is Socratic Religion Possible?

황 필 호

(한국, 강남대학교)

《 Abstract 》

Socrates did not found a religion, and in this sense he is different from Confucius, Buddha and Jesus. So there can be no 'Socrates' religion'. But if we can assume that there are evidently religious aspects in his thought, and if it can become a religion by expanding these aspects, then we may conclude that 'Socratic religion' is possible.

In general, there are three arguments to regard Socrates as a religious person. The first is to see him as a precursor of Christianity or a Christian martyr, the second is to regard Socrates' daimonion as identical with Christian revelation, and the third is to argue that Socrates was a religious person because of his firm belief in the immortality of soul. But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three arguments offer some justifications but insufficient to conclude that he was a religious person.

Shall we conclude then that not only Socratic religion is impossible but also he was not a religious person? I do not think so. For there are two counter arguments.

Religious truths have at least two essential characteristics. First, those who have religious truths are absolutely happy, no matter what. This is why Socrates as a religious person could advise his disciples to improve their souls even at the time of his death bed. Second, those who have religious truths do love others, no matter what. How could it be possible for someone to love invisible ultimate reality if he did not love visible brothers? This is why Socrates as a religious person took his mission to philosophize as a divine command.

Socrates did not initiate any official religion, but he was truly a devout religious person, who transcended the boundary of institutionalized religion. It follows that Socratic religion is evidently possible.

※key words : Socrates, daimonion, immortality of soul, religious truth

소크라테스, 영력, 영혼 불멸, 종교적 진리

I. 머리말

소크라테스는 공자, 석가, 예수와는 달리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의 사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 속성을 더욱 발전시키면 그것도 충분히 종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사상을 ‘소크라테스적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마치 분석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종교(Wittgenstein’s religion)’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주된 사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비트겐슈타인적 신앙제일주의(Wittgensteinian fideism)’는 가능하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적 종교를 해명하려는 우리의 작업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삶과 사상이 어느 정도의 종교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꿈 해몽, 점, 델포이 신전의 신탁, 영력(靈力, 다이모니온) 등의 지시를 굳게 믿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력은 믿을만한 안내자로서 그를 피해와 거짓으로부터 떠나도록 경고를 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영력이 주는 경고는 아주 현실적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는 영력의 신호를 유용하면서도 선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는 영력의 충고가 건전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희생하고라고 점과 꿈의 명령으로 나타난 철학함의 임무를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참인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그의 철학적 사명이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에 의해 엄청난 신적 및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끝으로 소크라테스는 신이 그에게 명령한 경건한 행위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래서 죽음까지도 그의 이 사명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철학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배심원들도 그가 신의 명령에 따라 철학을 가르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믿었다.¹⁾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꿈 해몽, 점, 델포이 신전의 신탁, 영력의 지시뿐만 아니라 그가 아테네인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야 할 사명까지도 모두 종교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은 그들은—소크라테스 자신이 동시

1) Mark L. McPherran, *The Religion of Socrat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p. 178. Cf. 소크라테스가 생존하고 있을 때 점은 국가와 개인의 차원에서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제기뽑기, 둘째는 천둥·새들이 날아가는 방향·희생제물의 내장 등과 같은 신호의 해석, 셋째는 구전되어 내려온 신탁에 대한 예언자의 해석이었다. 같은 책, p. 175 각주.

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던—합리성에 반대되는 미신일 뿐인가? 도대체 소크라테스의 합리적·회의론적 측면은 종교적 측면과 양립할 수 있는가? 즉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던 신념의 두 축인 ‘변증적 시험(elenctic testing)’과 ‘초합리적 의미(extrarational signification)’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맥퍼란(Mark L. McPherran)은 이렇게 답변한다.

소크라테스는 점의 효과를 무조건 무시하는 이지적 형태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점 보는 관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신은 신탁이나 점을 통해 인간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는 전통적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엉터리 전통적 해석은 그 신호를 해석하고 테스트하는 엄격한 합리적 및 변증적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물론 이런 답변은 모든 종교가 종교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혹은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인간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자극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권위자인 블라스토스(Gregory Vlastos)는 이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전적으로 역설이다. 다른 철학자들은 역설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소크라테스 자신이다. 그러나 그의 희랍적 역설은, 그 후에 나온 스칸디나비아·독일·프랑스의 역설과는 달리, 인간 이성을 패배시키지 않고 그것을 자극하려고 한다.”³⁾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의 본질을 초합리성 혹은 반합리성에서 찾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먼저 종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그 기준에 따라 소크라테스가 진정 종교인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우리는 “종교에 대한 명명백백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X라는 어떤 사상을 거기에 비추어보면 그것의 종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진정한 사랑을 먼저 정의하고, 어떤 사람의 사랑 행위를 거기에 비추어보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혹은 거짓 사랑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듯이. 이런 ‘정의에 의한 설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같이 보인다.”⁴⁾

그러나 이런 쉬운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사랑, 평화, 종교와 같은 추상 명사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정의할 수 있겠

2) 앞의 책, p. 177.

3) Gregory Vlastos, “The Paradox of Socrates,” *Gregory Vlastos, ed. The Philosophy of Socrates*, Anchor Books, 1971. Cf. 황필호, 《영어로 배우는 인생: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우공출판사, 2001, p.168.

4) Cf. 황필호, 《한국 무교(巫敎)의 특성과 문제점》, 서울, 집문당, 2002, 81-82쪽.

는가. 그런 정의에 의한 설명은—라일의 표현을 빌리면—‘기계 속의 유령’을 찾는 일과 다름이 없다. 원시인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계산기 속에 마치 천재적인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그런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적 및 방법론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적 종교를 주장해 왔는데, 그들의 논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의 선구자 혹은 기독교적 순교자로 보려는 견해며, 둘째는 그가 항상 믿고 살았다고 고백한 영력의 지시를 곧 기독교적 신의 계시로 보려는 견해며, 셋째는 소크라테스가 내세와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그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에 관계 없이—그를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보려는 견해다. 나는 세 견해를 차례대로 토론하겠다.

II. 소크라테스는 기독교의 선구자인가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그가 죽은 다음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각기 다른 이미지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의 소크라테스가 진짜 소크라테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이런 ‘소크라테스적 전통’의 다양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크라테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고대의 몇몇 학파를 알고 있다. “크세노폰 학파는 다만 소크라테스의 외면적인 것만을 기록하면서도 그들이 개발한 독특한 사고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유클리트로 대표되는 메가라 학파는 수사학과 논쟁술을 개발하여 논리적 오류를 잘 지적했는데, 그 중에도 디오도루스 크로누스는 가능성의 개념에 포함된 역설을 지적했다. 파이돈으로 대표되는 엘레아 학파는 변증법적 탐구를 계속했으며, 안티스테네스로 대표되는 시니어 학파는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족(自足)과 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통 속에서 살았다는 디오게네스도 이 학파에서 나왔다. 그리고 시리아 학파는 오히려 자연적 윤리설과 쾌락설을 개발했다.”⁵⁾ 소크라테스의 이런 변신은 그 후에 기독교적으로 해석되었다.

기독교 교부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순교자였다. 기독교 순교자들과 같이

5) Karl Jaspers의, 황필호 역,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모하메드》, 경기도용인, 강남대, 2001, 58-59쪽.

소크라테스는 그의 신념 때문에 죽었으며, 전통 종교에 대한 불경죄로 기소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종종 그리스도와도 비교되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다같이 회람 종교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티아노스는 “오직 하나의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말했으며, 오리게네스는 두 사람의 공통적 근거를 찾아냈다. 특히 테오도로스는 소크라테스의 비지식(非知識)에 대한 통찰이 신앙의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기 지식(self-knowledge)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곧 지상의 모든 정열을 초월한 순수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중략)

초대 기독교 시대에 들어와서 소크라테스와 고대 철학은 삶의 일부였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은 빛을 잃었다.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언급된 이름 중에서는 에후다 할레비(Yehuda Halevi)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소크라테스를 인간의 지혜를 가진 가장 완전한 대표자지만 하느님에 대한 지혜는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소크라테스는 고대 철학의 부흥과 더불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성스러운 소크라테스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외쳤고, 몽테뉴는 소크라테스적 사고를 인간이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자연주의와 회의주의로 해석했다. 계몽 시대에 들어와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자유를 외치는 독립 사상가가 되었다. 그리하여 멘델손은 그를 하느님의 존재와 영혼 불멸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도덕인의 모범으로 보았다.⁶⁾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기독교의 선구자나 기독교적 순교자로 보려는 이런 시도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소크라테스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는 주장에 췌기를 박은 사람으로는 단연 키에르케고르를 들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가장 깊게 이해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저작에서 실천했던 키에르케고르는 ‘삶의 세 단계’를 설명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종교적 단계’가 아닌 ‘윤리적 단계’의 대표자로 묘사했다. 즉 소크라테스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사이지만 기독교의 정수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상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소크라테스적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신앙의 단계로 돌입해야 한다. 즉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절대적 복종에 의해서만 인간 구원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이런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6) 앞의 책, 59-61쪽.

7)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황필호, 《문학철학 산책》, 서울, 집문당,

도덕군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종교인이 아니며, 그래서 ‘소크라테스적 종교’도 존재할 수 없다.

Ⅲ. 영력은 신의 계시인가

소크라테스는 평생 영력의 소리를 믿고 살아 왔다고 고백한다. 도대체 영력이란 무엇인가? 맥퍼란은 이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영력은 내적 및 개인적으로 충고를 주는 신호(an internal, private admonitory sign)며, 그 목소리는 신이 인간의 의식 수평으로 보낸 것이다. 그것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전혀 없었거나 거의 없었던 것이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소사에 대한 영력의 간섭은 대개 그에게—어떤 사전 통고도 없이—그냥 그가 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뿐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분명히) 그 신호를 보내주는 신성을 인위적으로 불러낼 수는 없어도,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은 확실히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 마치 확실한 선신(善神)의 선물과도 같이.

종종 이 영력은 소크라테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영력은 그가 추구하는 전문적 도덕 지식을 구성하는 일반적 및 이론적 주장(general, theoretical claims constitutive of the expert moral knowledge)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행동을 추구하지 말라는 비전문적 도덕 지식을 제공할 뿐이다.

끝으로 영력의 신호는 미래에 해로울 일, 더욱 정확히 말해서 미래에 좋지 않을 일, 특히 인간의 이성으로 예언할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다. 한 마디로 영력은 일종의 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평범한 점쟁이가 아니다. 그가 에우티프론에게 대했던 변증법적 태도, [만약 그대가 경건성과 불경건성을 모르면 절대로 어른이나 당신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에우티프론》의 마지막 기술, 어떤 경우에도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신의 명령, 그리고 그의 실제 생활 등은 모두 영력이나 다른 모든 신호까지도 가능한 합리적 판단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한다.⁸⁾

그래서 무지의 자각,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력에 대한 확신을 소크라테스의 3대 본질로 규정한 야스퍼스는 영력을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1996, 255-310쪽; S. Kierkegaard, 황필호 역, 《철학적 조각들》, 서울, 집문당, 1998.

8) McPherran, 앞의 책, pp.185-187.

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구체적이며 독특한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신은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릴 때부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영력의 소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금지시켰을 뿐이며,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영력의 소리는 그가 정치계로 나서려고 할 때 그를 제지시켰으며, 그를 배반했던 제자가 다시 찾아와 예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반대했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소리는 침묵을 지켰으며, 소크라테스는 이 사실을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이 신은 조그만 일까지도 간섭해 왔다.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내게는 아마도 마지막이며 가장 악한 죽음이 올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내가 집을 떠날 때, 법정으로 걸어올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나는 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선하지 않고 나쁜 일이라면 반드시 반대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나 이전에 누가 이와 같은 영력의 혜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⁹⁾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믿고 살았다는 영력 혹은 신령을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듯이 보인다. 이미 말했지만, 우선 영력은 소크라테스에게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잘못 행동할 때만 안 된다고 말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영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행사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의 영력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별반 토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야스퍼스도 이렇게 말한다.

그 소리가 지식을 주지는 않는다. 명백한 행동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안 된다고 말할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따랐다. 그것은 객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남의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행동에만 적용된다. 또한 그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 소리를 아무 때나 끌어낼 수도 없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힌트로 받아들일 뿐이다.¹⁰⁾

9) Jaspers, 앞의 책, pp.39-40.

10) 위의 책, p.40.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영력을 신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일단 그것을 기독교의 계시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서술하려고 하며, 맥퍼란은 영력이 보낸 신호의 종교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을 동시에 인정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력의 힘을 통해 소크라테스적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냐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그것의 정확한 속성이 무엇이든지 간에—영력의 존재 자체의 인정이 곧 그것의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소크라테스적 종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영력이 종교적 의미를 함유하려면 그것의 속성이 기독교의 계시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소크라테스적 종교의 실체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IV.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믿었는가

소크라테스를 종교인으로 보려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가 분명히 큰 관심을 보였던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그의 담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 끝으로 그런 영혼이 살 수 있는 내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신념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향상’을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시했으며,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토론했던 주제는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데츠로는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경구는 단순히 지나치지 말라는 중용의 처세술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생각하라!”는 뜻이며, 이런 사상은 이미 인도의 《우파니샤드》에도 나온다고 말한다.¹¹⁾

논리적으로 볼 때,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영혼의 회상설(回想說)은 전생을 전제로 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전생이 없다면 망각할 진리도 없을 것이며, 망각된 진리가 없다면 다시 회상할 진리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전생은 한 번일 수도 있고 수많은 전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회상설은 이런 전생을 배경으로 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며, 이런 뜻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전생과 금생에서의 영혼의 실재를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전생과 금생 뿐만 아니라 후생도 믿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만약 전생이 있다면 당연히 후생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 한 번 혹은 수많은 삶이

11) 모리모토 데츠로, 《소크라테스 최후의 13일》, 서울, 푸른숲, 1997, 172-186쪽.

금생으로 완전히 끝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물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생, 금생, 후생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내세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전생과 금생의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으면서도 내세를 부인하고 내세의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그는 내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어느 경우라도 다 좋다고 주장한다. 그가 “선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우리가 꼭 영혼 불멸을 믿어야 영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영혼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퍼란도 소크라테스의 영혼관을 ‘제한된 불가지론(a qualified agnostic-ism)’으로 설명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자들 사이에 정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크라테스가 다음의 견해를 주장했거나 적어도 수용했다고 말한다. 즉 영혼은 사후에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다른 영역에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종말론적 입장을 찾으려면, 우리는 《변론》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그의 논증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가장 그럴듯한 의견은 제한된 불가지론이다.¹²⁾

그러면 맥퍼란이 주장하는 제한된 불가지론이란 무엇인가? 그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전통 종교와 도덕을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측면과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중성은 결국 회의론적 절제(skeptical restraint)와 종교적 참여(religious comonitment)의 기묘한 혼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영혼 발전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꼭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무(無)의 심연으로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영혼의 향상을 위해 소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대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블라스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12) McPherran, 앞의 책, pp.247-248.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을 필요가 없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것을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신념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변론》에서 만약 영혼이 불멸한다면, 즉 영혼이 그의 모든 지적 능력을 하데스(Hades)로 끌고 가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소크라테스적 논쟁을 금생에서 했던 대로 다시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상상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삶이야말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서도 그는 이것이 영혼 불멸을 믿어야 할 훌륭한 이유라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대안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즉 죽음은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대안이며, 만약 이 대안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선한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그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¹³⁾

결국 이런 주장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려 했던 무지의 자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문제다. 후자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자체가 하나의 지식이라고 주장하고, 전자는 그것이 지식으로 인도하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본다. 나는 전자를 지지한다.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본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자’일 뿐이라는 공자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¹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무지를 그렇게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변론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는 그가 상대방이 제시한 논증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답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결국 그는 내세와 영혼 불멸의 문제를 그냥 열린 질문으로 제시하면서, 어느 경우를 당해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단 순히 질문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옳다. “신은 나에게 산파가 되기를 강요 하신다. 그러나 나에게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와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저 더욱 무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그들에

13) Vlastos, 앞의 글.

14) Cf. 황필호, 《중국종교철학 산책》, 서울, 청년사, 2001. 109-115쪽.

게 은혜스럽기만 하다면, 그들은 모두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진리 탄생은 나와 신에게 빚지고 있다.”¹⁵⁾

소크라테스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은 시절에 케변론과 자연철학에 탐닉했던 그는 끈질기게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그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혼란, 열등 의식, 분노, 증오를 일으킨다. 그래서 히피아는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을 비웃고 시험하면서도 자신의 답변이나 의견을 한 번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도 한다.¹⁶⁾ 소크라테스는 내세와 내세의 영혼 불멸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꼭 영혼 불멸설을 믿어야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독자는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멸의 뜻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문제를 토론했다는 것은 그가 영혼 불멸을 이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초세상적, 초월적, 내세적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의 영혼보다는 새로운 의미의 영혼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한 마디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영혼은 반드시 초월적이 아닐 수 있다. 블라스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서양 전통과 그와 못지 않게 희랍 전통에서도 깊게 뿌리박고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초세상적 연상(the other-worldly associations)에 의해 착각당하지 말라는 경고를 첨부하고 싶다. 소크라테스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아주 좁혀서 사용한 것이다. 즉 그는 모든 초세상적 기원이나 운명을 가진 것은—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물리적 혹은 형이상학적 구조도—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역시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들에 한정해서 이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 영혼과 반신학적 영혼, 혹은 신비적 영혼과 물리적 영혼의 문제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복음은 도그마 없는 복음(gospel without dogma)이다.¹⁷⁾

만약 나의 이런 주장이 옳다면, 소크라테스가 전생과 금생의 영혼의 존재를 확

15) Jaspers, 앞의 책, pp.32-33.

16) 위의 책, p.42에서 재인용.

17) Vlastos, 앞의 글.

신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영혼을 꼭 초인간적·초세상적·초월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영혼이란 그에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모든 인간의 본질적 의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세와 영혼 불멸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종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분명히 그는 내세와 영혼 불멸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열려진 문제였다.

V. 종교적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적 종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몇 가지 논증의 근거와 그 근거의 불충분성을 지적했다. 첫째로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예수와 비슷하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지나친 자기 위주의 주장일 뿐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키에르케고르가 생각했듯이—소크라테스를 훌륭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로 소크라테스가 영력의 신호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영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영력을 기독교의 계시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부정의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영력은 일단 부정과 긍정의 목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계시와는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내세와 영혼 불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도 그리 확정적이지 않다. 비록 자신은 영혼 불멸을 철썩같이 믿으면서도, 그는 영혼의 문제를 끝까지 열린 문제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의 세 가지 논증의 불충분성에 의해 소크라테스적 종교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종교인이 되지 못한 철학자’로만 취급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소크라테스적 종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자신을 완벽한 종교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론과 실천, 지식과 진리, 앎과 함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과 진리는 확연히 구별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며, 아는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지식보다 한 차원 높은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나는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모든 종교적 진리는 진리의 소유자에게 무한한 자유·영원한 행복·절대

적 기쁨을 준다. 물론 지식이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식은 지식의 소유자에게 절대적 기쁨을 줄 수 없다. 그것이 진정 절대적 기쁨을 주려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지식을 갈구하게 된다. 성서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⁸⁾

세기의 지성으로는 단연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개척한 새로운 지식에 만족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신의 질서를 견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아포리아를 남기면서—자신의 지적 업적을 극히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영혼의 향상’을 위해 살아야 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모든 종교적 진리는 실천된다. 실천되지 않은 진리는 아직 진리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명제를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훌륭한 지식일 수는 있지만 아직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¹⁹⁾ 진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궁극적 실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가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일상적 지식과 종교적 진리의 구별이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 영키고 설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 죽음까지도 초월한 절대적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불쌍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일단 그가 일상적 지식이 아닌 어떤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이돈》에 기록된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을 읽어 보라. 이 얼마나 의연하고 평화로운 죽음인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종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종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18) 《전도서》, 1:18.

19) Cf. 움직이는 신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황필호, 《엔도 슈사쿠의 종교소설 읽기》, 서울, 신아출판사, 2002, 206쪽.

VI. 맺음말

나는 이 글에서 소크라테스를 종교인으로 보려는 세 가지 전통적 논증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전혀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를 종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사상이 종교적이거나 그의 사상에서 태어난 신념 체계가 종교로 발전할 수 있게 되려면, 그것은 우선 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마치 예수와 비슷하다거나, 그가 평생 믿었던 영력의 소리가 하느님의 계시와 비슷하다거나, 소크라테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즉 어느 신념 체계의 종교성 여부는 바로 그것의 기독교와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지구상의 종교 복수주의 상황을 무시한 기독교인의 독단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은 결국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거나 낮은 차원의 종교일 뿐이라는 결론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확실히 믿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가 믿었던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의 내세관과 완전히 일치하는가? 비록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내세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육체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theory of immortality)이 있고, 둘째로 인간의 육체나 영혼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독교의 부활설(theory of resurrection)이 있고, 셋째로 인간의 카르마가 다시 다른 육체를 취하게 된다는 인디아의 환생설(theory of reincarnation)이 있다. 이들은 전혀 상이한 이론들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내세관 자체를 오해한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영혼 불멸설과 영혼 부활설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실제로 기독교의 내세관은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영혼 혹은 육체의 부활설이다.²⁰⁾

소크라테스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종교인이었다. 제도 종교를 초월한 종교인이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적 종교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다.

20) John Hick, 황필호 역, 《종교철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0, 161-190쪽.

《 參考文獻 》

- 박종현, 《회랍사상의 이해》, 서울, 종로서적, 1982.
- 황필호, 《한국 巫敎의 특성과 문제점》, 서울, 집문당, 2002.
- , 《엔도 슈사쿠의 종교소설 읽기》, 서울, 신아출판사, 2002.
- , 《중국종교철학 산책》, 서울, 청년사, 2001.
- , 《문학철학 산책》, 서울, 집문당, 1996.
- 디아네 콜린스, 김동림 역, 《철학의 큰스승 50》, 서울, 책세상, 1989.
- 존 힉, 황필호 역, 《종교철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0.
- 모리모토 테츠로, 양억관 역, 《소크라테스 최후의 13일》, 서울, 푸른숲, 1997.
- 칼 야스퍼스, 황필호 역,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모하메드》, 경기도용인, 강남대, 2001.
- Gregory Vlastos, ed. The Philosophy of Socrates, Anchor Books, 1971.
- Mark L. McPherran, 《The Religion of Socrat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Reginald E. Allen, ed. 《Greek Philosophy: Thales to Aristotle》, Macmillan, 1966.
- W. K. C. Guthrie, 《Socr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 《The Greek Philosophers》, Harper Torchbooks, 1960.